

[성탄전도집회 - 간증]
천사도 흠모하는 전도자의 삶

김순애 권사 / 2000 / 페이지수: 4

“먼저 칭찬의 씨를 많이 뿌리십시오.
다음에 기도의 물을 많이 주십시오.
그 후에 사랑의 빛을 비추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박자가 맞을 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전도 ‘못 해’ 신앙

17년전까지만 해도 저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며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이 무척 싫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또는 이집 저집을 다니며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할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사나 성가대처럼 점잖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도는 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면 목사님이 욕심이 많아 교인들을 많이 끌어모으려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전도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보통 죽을 고비를 넘겼다든가 개인적인 큰 어려움을 겪다가 예수 믿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체험을 고백합니다. 그 분들에게는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태신앙으로 아무 문제 없이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대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장점이 늘 마음속에 신앙의 뿌리가 있다는 것이지만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전도에 대해 소극적이었습니다.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저렇게 특별한 체험이 있으니까 전도를 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특별한 체험도 없기에 전도는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사람 만났을 때 보자마자 대뜸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사람마다 성품이나 기질이 모두 다르기에 자기에게 맞는 전도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극적인 체험이 있고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처럼 열정적으로 전도를 할 수도 있고 특별한 체험이 없을지라도 어려서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서서히 바뀌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옥 가면 네 탓’

이렇게 전도에 무관심했던 저를 바꾸어 놓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아주 가까이 지냈던 어떤 이웃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죽은후에 하나님이 ‘너 교회 안다녔으니 지옥가야 된다’고 하면 저를 하나님께 고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저만 열심히 믿으면서 그분에게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으니까 몽땅 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에 가면 네 탓이다.’라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당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두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두 계명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막상 이웃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고 나니 나중에 주님 앞에서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 이웃에게 정식으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한 후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권면했습니다. 그 분이 제가 처음 전도 한 대상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하고 싶었던 이유는 한가지였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면 예수님 맘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저것 주세요’하는 기도는 잘 하면서 제가 예수님 맘에 들게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주실까 하는 의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제게도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오랫동안 지속했는데도 왜 응답이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 자녀가 내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시키는 것을 잘 하듯이 주님께서 시키시는 것을 잘하면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 전도였습니다. ‘너희가 잃은양 하나를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김만철씨 가족 전도

저도 전도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전도한 사람중에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을 꼽으면 김만철씨 가족이었습니다. 이들 가족이 안기부에 있다가 저희 교회 성도님 앞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때 김만철씨 가족은 열 명의 대식구였습니다.

이분들을 전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온갖 종교에서 포교를 위해 이 사람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 당시 이들이 제일 관심갖았던 종교는 이름이 그럴듯해 보이는 ‘통일교’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저 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녀 교육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큰아이 광옥이가 기독교학교인 정신여고에 다니게 되었는데 어느날 불어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불문과를 졸업한 교인에게 부탁을 했더니 겁이 나서 못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결국 제가 직접 배워서 아이에게 가르치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부모가 마음 문을 조금 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광옥이를 설득해서 교회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광옥이는 목사는 드라큐라이고 교회 지하실에 가면 시체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광옥이가 가위에 놀리는 문제로 김만철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실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봤더니 선물로 받은 목탁, 동자상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에게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물건들을 선물로 달라고 부탁하고 보자기에 다 싸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것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기적처럼 이날부터 아이는 가위에 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광옥이가 믿음을 갖게 되고 서서히 다른 식구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저 또한 개인적으로 전도에 대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다 돌아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는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 가진 기독교인들을 보면 하나님과 교회를 판단하기 때문에 인도하는 사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전도 통해 오는 엄청난 유익

사실 우리는 손해보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손해만 본다면 어떻게 제가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면 절대적으로 먼저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전도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잘 따라오는 사람과 이유를 납득시켜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전도하며 느끼는 것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는 분은 믿음이 금방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고 고생이 덜합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면 싸움밖에 만나지만 행동으로 보이면 상대방이 변합니다. 따라서 내가 먼저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알기 전의 나와 후의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모가 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동글게 변해야 합니다. 모난 것이 동글게 되려면 사람들과 부딪치며 깨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바뀌면 상대방도 바뀝니다.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하려는 것은 전도를 하면 엄청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전도하면서부터 습관적인 기도가 중보기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 문제만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기적인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듯 하나님께 순수하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출발이지만 이러한 '주세요 기도'는 자칫 기복신앙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가르칠 때 처음부터 순서로 제대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전도대상자를 만나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응답을 경험하면서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대상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또한 전도를 통해서 맛볼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전도대상자 때문에 내가 기쁨을 갖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 제일 부러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인간적으로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것이 겁이나서라도 전도자를 풍족히 축복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6장33절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하나님 심부름하는 동안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돼 주셔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에 가속도 붙이는 전도

또한 전도를 하면 믿음의 동역자와 후계자를 얻게 됩니다. 내가 베푼 조그만 사랑이 어려울 때 큰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가까이 다가갈 대상 1순위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결정해 보십시오. 미운 친구, 형제들에게 마음을 열어 다가가 보십시오, 나의 태도가 바뀌면 다른사람도 바뀝니다.

전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마지막 이유는 그 사람을 얻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에 예수님께 드리는 상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상자에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을 둡니다. 상자에 선물이 어느 정도 모이면 전도대상자나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면 속사람이 변화돼야 합니다. 전도는 그 변화의 과정에 가속도를 붙여 줍니다. 씨앗이 심겨져 싹이 나고 자라는 데는 과정이 필요하듯 전도할 때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의 씨를 많이 뿌립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물을 많이 줍니다. 그 후에 사랑의 빛을 비추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박자가 맞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는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 출처 : 온 누 리 신 문**